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29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10.22.(목)

일지테크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촉구

특별수당·법인카드 제공 의혹 제기… 체불임금 지급·소수 노조 차별 중단 요구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10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일지테크 자본 부당노동행위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주지부,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각 지회 상근자, 일지테크지회가 참석해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일지테크지회는 지난 7월 14일 설립된 신규 지회로, 현재 경주공장 조합원 45명으로 구성된 소수 노조다. 사측은 소수 노조라는 이유로 기초합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공식 중단했다.

지회는 사측이 말로는 법을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에게 전임자 임금 외 부당원조지원(특별수당)과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는 부당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근무 시작 전 안전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 체불과 차별 지급,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분리 조치 미이행, 허위 근태를 통한 임금 부당 수령 등 지회는 회사에 시정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

했지만, 회사는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현장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이날 최해술 민주노총 경주지부장은 규탄발언에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제대로 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며 “포항노동지청이 일지테크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진홍 지부장은 금품 제공과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정 지부장은 “일지테크 현장의 노동자들이 피해자이고, 돈을 받은 위원장과 제공한 회사는 이득을 취했다”며 “노동부는 즉각 조사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 창출을 명목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은 사측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일지테크 작업복을 입혀 촬영한 사진을 경주시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진우 일지테크지회장은 특별수당과 법인카드 제공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합비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조합비 사용 내역과 회계 관련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며 “노동조합의 규모가 다르다고 노동자의 권리까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해서 경주공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안전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이 일부만 인정된 문제를 지적하며, 누락된 임금 지급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위의 개선 및 촉구 요구를 담은 고소·고발장을 포항지청에 전달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위법행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마무리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고 괴롭힘과 차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일지테크지회 동지들의 투쟁에 경주지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